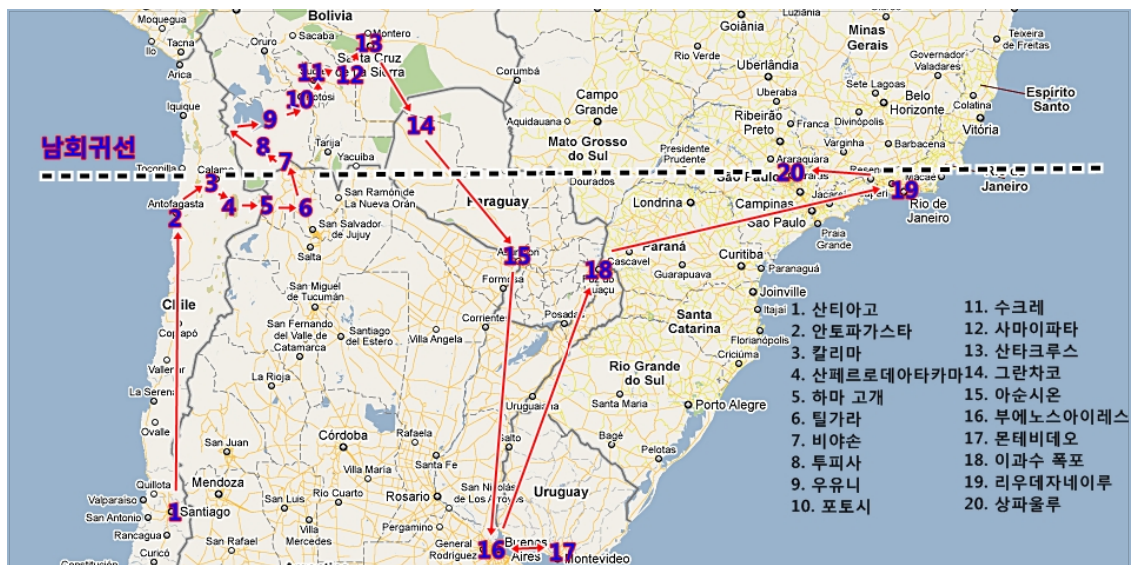


■ 남회귀선을 따라 남미 횡단¹⁾

강 문 근

1709~1804년 사이에 이루어진 알렉산더 훔볼트의 적도 부근 남미 탐사나, 체계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등은 지리학도에 게 로망이다. 하지만, 로망은 로망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제목처럼 남회귀선을 따라 남미 횡단을 한 것은 아니고, 도시를 위주로 가보지 않은 곳을 다녔는데, 여행을 마치고 나서 지나고 보니 남회귀선을 기준으로 거의 위도 10도 안쪽에 방문 도시들이 속해 있다. 고도차는 약 5천 미터. 여행은 남반구의 여름인 12~2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높은 고도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를 제외하곤 더위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여행기간은 45일이었고, 신희 여행이었다.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20개의 지명만을 뽑아 간략한



남미 횡단 경로

1) 전체 여행기 <http://welovetravel.net/a/2008/dp-honeymoon/hmoon-main.htm>

지역 소개하고 주로 느낌 위주로 글을 작성한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다녀왔지만 아직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전히 먼 곳이다. 조금 더 다녀온 사람이 많아지고 파편적인 정보라도 계속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좀 더 우리가 라틴아메리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리 다녀온 사람으로서 뒤에 가는 사람들에게 로망을 선사하기 위해 짧은 글을 작성한다.

1) 산티아고(Santiago) - 남위 33도 30분/650미터

에어캐나다를 타고 서울 → 밴쿠버 → 토론토 → 산티아고까지 갈아타는 시간을 포함하여 30시간 반이 걸렸다. 정말 먼 곳이다. 아는 사람이 있어 부탁한 물건을 잔뜩 가져갔는데, 음식물들은 바코드가 있는 봉투에 넣어 모두 밀봉을 하였다. 빼앗기지 않고 모두 세관을 통과했다. 공산물과 농산물의 차이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은 쉽게 입국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꽤 큰 금액을 내고 입국 비자를 공항에서 받게 한다. 호혜평등이란 말이 실감난다.

2)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 남위 23도 40분/0미터

칠레에서 아타가마 사막을 가기 위해 일단 태평양의 항구 도시인 안토파가스타까지 가장 좋은 버스표를 구입했다. 1,371km를 태평양을 따라 북쪽으로 가며, 18시간 30분이 걸린다. 차비는 우리 돈으로 약 84,000원 정도이다.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

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다. 칠레는 76만 평방킬로미터에 약 1,600만 명의 사람이 살아, 인구밀도가 평당 킬로미터 당 22명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휴게소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지 버스에서 마치 비행기의 기내식처럼 식사가 제공된다.

안토파가스타는 원래 볼리바이의 항구였다. 칠레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아타카마 사막에 대해 보다 많은 영토를 요구하였고, 1866년 칠레와 볼리비아는 남위 24도와 평행한 선을 국경으로 정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더불어 남위 23도와 25도 사이의 땅에서 나온 초석을 나누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볼리비아가 수익에 대한 협정을 철회하려고 하자 태평양 전쟁(1879~1883)이 발발하였다. 전쟁 중 칠레는 볼리비아의 해안과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메히요네스(Mejillones), 토코피아(Tocopilla) 항구를 점령했다. 또한 페루가 볼리비아를 지지하며 전쟁에 참전했을 때 칠레는 페루의 태평양 연안과 아리카(Arica)와 이키케(Iquique)를 비롯한 몇몇 항구도 점령했다. 결과적으로 칠레와 페루의 국경선은 아리카의 바로 북쪽으로 변경되었고, 볼리비아는 내륙국이 되었다.

3) 칼라마(Calama) - 남위 22도 30분/2260미터

안토파가스타에서 북동쪽 내륙으로 버스를 3시간 타고가면 (212km) 세계적인 노천광인 추키카마타 구리광산이 있는 칼라마에 도착하게 된다. 태평양 바다에서 단숨에 해발고도가 2,260미터로 높아진다. 추키카마타 구리광산은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 나왔던 곳으로, 1952년 체게바라는 이곳을 잠깐 둘러봤다. 1915년부터 채굴을 시작하였으며, 애초에는 미국 회사가 경영하

였으나 1970년대 칠레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최근에 광부 구출 사건이 벌어진 산호세 광산은 안토파카스타와 산티아고 사이에 위치한 코피아포 부근에 있는 광산이다.

4)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San Pedro de Atacama) – 남위 22도 55분/2430미터

산페드로는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로, 현재는 관광도시로 유명하다. 달의 표면을 연상시키는 황량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며, 모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리비아의 우유니를 향해 출발하는 전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

초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안토파가스타에서 4시간 40분 만에 해발고도를 2,430미터 올렸더니 고소증이 와서 엄청 고생했다. 5천 미터를 넘어야 하는 우유니로 바로 가는 길은 포기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괜찮은데, 올라가서 머문다면 견딜 수가 없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고소증을 겪지 않았을까? 1550년대 그들은 벌써 이곳까지 진출해서 교회를 지었다.

5) 안데스 하마 고개(Paso de Jama) – 남위 23도 14분/4255미터

산페드로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은 하마(Jama, 160km)와

시코(Sico, 203km) 두 군데 국경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산페드로에서 하마를 경유하여 아르헨티나의 살타까지 일주일에 3번 국제 버스도 있다. 승합차로 세계일주 중인 후배를 만나 하마를 통해 안데스를 넘었다. 칠레 이민국은 산페드로에 있다. 거기서 2시간 반을 가면 국경이고 그곳에 아르헨티나 이민국과 세관이 있다. 아르헨티나 이민국은 해발고도 4,320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꽤 많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계속 되고 있었다. 국경을 통과한 지 두 시간 만에 호텔 하나와 식당이 있는 곳으로 주유소를 만났다. 하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3,675미터이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주변 경관이 반건조의 스텝 지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6) 틸카라(Tilcara) - 남위 23도 34분/2478미터

틸카라는 아르헨티나 북서쪽에 있는 후후이(Jujuy) 주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잉카 유적지가 있으며, 넓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의 단구층에 자리잡고 있다. 많은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안데스 동쪽 사면에 위치한 코르도바, 투구만, 살타를 따라 북상한 후, 물가가 저렴한 볼리비아를 거쳐 페루의 마추픽추까지 배낭여행을 하면서 틸카라를 비롯한 작은 도시들을 거친다. 틸카라의 버스터미널엔 북행이나 남행차가 도착하면 배낭을 짊어진 젊은이들로 우르르 내리고, 또 우르르 차에 오른다.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도 많다. 아르헨티나에 입국했으니까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역시 스테이크의 두께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안쪽은 거의 육회 수준이다. 틸카라에서 이틀 자면서 고도 적응을 한 후 다음 목적지를 해발 2900미터의 우마와카

(Humahuaca)로 정했다. 하지만 정오 무렵에 도착했는데도, 많은 여행객 때문에 숙소 잡기가 쉽지 않아 바로 국경 도시 라키아카(La Quiaca)로 향한다. 여긴 해발고도가 3,422미터이다. 어찌다 보니 하루에 1천 미터나 고도가 높아졌다.

7) 비야손(Villazón) - 남위 22도 05분/3456미터

볼리비아의 도시 비야손과 라키아카는 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오후 늦게 라키아카에 도착했다. 물가가 비싼 아르헨티나에서 잘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볼리비아 국경을 넘었다. 아! 물가는 저렴한데, 시설은 확실히 열악하다. 식당에 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닭을 먹는다. 스테이크와 통닭.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경제적 차이가 느껴진다.

8) 투피사(Tupiza) - 남위 21도 30분/2964미터

투피사는 볼리비아 남부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고도가 높아 서인지 주변은 황량함 그 자체이고 강을 따라 오아시스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 많은 여행객들이 우유니와 칠레의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 사이에 있는 안데스 산지를 여행한다. 하지만 볼리비아에서만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발점과 종착점이 우유니 또는 투피사가 된다. 관광 붐 타운이기도 하지만, 주변 오지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중요한 장터이기도 하다.



우유니의 어린이들. 2008년 1월

9) 우유니(Uyuni) - 남위 20도 27분/3672미터

투피사에서 3박 4일 안데스 투어에 참가했다. 4천~5천 미터 사이의 고원지대 초원을 지프로 달리면서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유니 소금 사막을 구경하는 것으로 투어가 종료된다. 결국 두 번째 날 5천 미터 고개를 넘으면서 본격적인 고소증이 시작되었다. 두 대의 지프에 10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는데, 나 혼자 고소증이 왔다. 나의 토사물로 아름다운 자연을 더럽혔다. 우유니 소금 사막에는 리튬이 묻혀 있어 현재 자원외교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10) 포토시(Potosí) - 남위 19도 34분/4,214미터

우유니에서 포토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사진기, 렌즈, 컴퓨터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 볼리비아 경제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 신혼여행 액땜. 몸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자. 다행히 찍었던 사진 파일은 백업 하드에 저장해 두어서 사진은 건졌다. 남은 것은 사진뿐이라고 하더라! 해발고도가 4천 미터여서 역시 걱정했는데, 3천~5천 미터를 오가며, 두 번이나 고소증을 겪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끄떡없다. 인간은 역시 자연에 적응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볼리비아의 해발고도와 농업 자원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1545년 거대한 은광이 포토시에서 발견되었다. 은은 리마까지 노새로 옮겨진 후 파나마를 거쳐 유럽으로 갔다. 지역의 부는 계속 엄청나게 수출되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가난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부를 바탕으로 식민지풍의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높은 해발고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은광은 현재도 채굴되고 있으며, 은광 체험 여행도 가능하다.

11) 수크레(Sucre) - 남위 19도 02분/2740미터

우유니-포토시 구간은 비포장 도로였으나, 포토시-수크레는 포장도로인데다가 합승택시를 탔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했다. 볼리비아의 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이며, 반 이상이 알티플라노와 시에라의 산지에 살고 있다. 약 1백만 명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라파스는 오리엔테에 있는 산타크루스

(150만 명)에게 최대 도시의 영예를 빼앗겼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위성주거지역 엘알토(El Alto, 90만 명)와 더불어 라파스에는 행정부와 정치권력이 남아 있다. 2,740미터에 위치한 수크레에는 대법원이 있으며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대법원이 있어서 그런지, 역시 콜로니얼풍의 건물들이 많고, 주민들도 백인이 많다.

어제부터 하루 세 시간씩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처자와 숙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 3주 동안 스페인어를 배운 후, 한 달 동안 볼리비아에서 봉사활동하고, 다시 한 달 동안 볼리비아와 페루를 여행할 예정이란다. 세 달이면 스페인어 + 봉사활동 + 여행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에콰도르의 키토와 더불어 수크레도 스페인어 단기 교습지로 인기가 있나보다.



수크레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

12) 사마이파타(Samaipata) – 남위 18도 10분/1600미터

원래는 비야손으로 돌아간 후 살타 – 멘도사 등을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버스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 터에 마침 산타크루스로 가는 비행기표 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거기 가서 파라과이 또는 브라질로 가는 여정으로 급선회. 산타크루스 근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찾아보니, 체계바라가 마지막 게릴라 활동을 했던 지역 근처에 잉카 유적지가 있는 사마이파타라는 산골 소도시가 있다. 또한 국립공원 정글 탐사도 가능하다.

수크레에서 비행기를 타니 단 30분 만에 산타크루스에 도착이다. 하늘에서 보니 꼬불꼬불한 계곡과 길들이 보인다. 버스로 가면 1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산타크루스는 평원에 있다. 공항에 도착하니 마이애미로 가는 아메리칸에어라인 직항편이 있다. 그리고 시내에 들어오니 각종 대형마트 등 완전히 안데스쪽 도시들과는 별천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석유를 기반으로 성장한 오리엔테 지역의 중심지 산타크루스는 현재 볼리비아의 최대 도시이다. 아마 이곳에 와보지 않았다면, 볼리비아는 산만 있는 나라라고 우겼을 것이다.

사마이파타는 해발 1,600미터에 도착한 시원한 고원도시여서 산타크루스의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더위를 피해 많이 오는 곳이다. 그리고 주변은 열대 밀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잉카와 오리엔테 지역의 주민들이 교역하는 잉카 영역의 동쪽 끝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고 한다.

13) 산타크루스(Santa Cruz) - 남위 17도 50분/420미터

인구 150만 명의 볼리비아 최대 도시답게 산타크루스 데 라 시에라(Santa Cruz de la Sierra) 버스터미널은 붐볐다. 볼리비아 국내로 가는 버스들은 물론, 페루의 리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상파울로,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등 라틴 아메리카 각지로 가는 국제버스들도 많았다. 우리의 선택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가는 길에 열대 사바나 지역인 그란차코를 관통한다.

산타크루스는 열대 지역에 속한 곳인데다가 내륙이고 고도가 낮아 무지하게 후덥지근했다. 그리고 머무는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중국음식점들이 많아서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건물이나 날씨가 모두 뉴올리언스 느낌이 나는 곳이었다.

14) 그란차코(Gran Chaco) - 남위 18~23도/200~400미터

그란차코는 열대 사바나 지역으로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약 70만 평방킬로미터이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이 관목림만 계속되는 곳이지만, 지리 시간에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쳐 보고 싶어 이 지루한 길을 선택하였다. 20시간 소요. 요금은 1인당 55달러. 무인지경을 달리기 때문에 요금에는 4끼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저녁 7시 산타크루스 출발. 다음날 오후 4시 아순시온 도착이다.

새벽 4시에 볼리비아 이민국을 통과했다. 이후 그냥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바나 경관이 계속되다가 오전 10시에 드디

어 파라과이 첫 마을이 나타나고 이민국을 통과했다. 차로 6시간이나 달리는 거리가 무인지경인 셈이다. 태평양 전쟁의 결과 내륙국인 된 볼리비아는 파라과이 강을 통해 대서양으로 진출하려고 파라과이와 그란차코(1932~1935)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했고, 파라과이는 그란차코의 많은 지역을 그들의 수중에 넣었다.

15) 아순시온(Asunción) - 남위 25도 17분/100미터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은 나에게 로망이었다. 1993년 남미를 여행할 때 론리플래닛 가이드북의 아순시온 숙소 부분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저렴한 숙소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의 반대쪽에서 온 배낭여행자가 어느날 불쑥 숙소로 들어가 모국어로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상당히 극적일 것 같았다. 하지만 2008년의 가이드북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숙소는 한 군데도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이 많은 거리에 가 보았다. 정말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1970년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입간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경비를 주로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아순시온에서는 환전을 했다. ATM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이용료가 무려 5달러를 넘었다. 아순시온에는 은행보다 환전소가 더 많아 보였다. 달러, 유로는 물론이고 중남미 국가의 화폐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돈을 환전해줬다. 이유가 뭘까?



아순시온

16)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 남위 34도 36분/0미터

남미의 파리, 실감할 수 있었다. 정말 멋진 곳이다. 5박 6일을 그냥 널널하게 지냈다. 이렇게 여유를 가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렴한 물가 때문이었다. 1달러에 3페소(여행 당시 원화 강세라 1달러에 960원이었다). 동네 식당에서 스테이크 정식이 3,600원 정도였다. 지하철은 600원 정도.

나라가 크니까 장거리 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그 중심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버스 터미널 크기는 어마어마하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행지이다 보니 숙소 잡기가 만만치 않았다. 터미널에 내리니 소위 빠끼가 있었다. 호스텔을 소개해주는데, 가이드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곳이라 가지 않았다. 아! 지도라도 받아둘 것. 정말 숙소를 찾아다니느라 한나절을 보냈다.

17) 몬테비데오(Montevideo)

- 남위 34도 53분/0미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 당일로 다녀왔다. 몬테비데오를 가게 된 것은 내가 지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척점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앞바다 해상 200km 지점이라고 가르친다. 바다로 나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몬테비데오에는 가 봐야 할 것 같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거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를 연결하는 직통 고속선도 있지만 가격에 부담이 있어 페리를 타고 라플라타 강을 건너 콜로니아라는 우루과이 도시에 간 다음 다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몬테비데오에 갔다. 도착하자마자 걸어서 바다와 면해 있는 해안도로까지 갔다. 그러다가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렀는데, 오가는 젊은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가게 주인이 밖으로 나가면 바로 강도를 당할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그냥 평화롭게 보이는 해안가 동네가 빈민지역으로 우범지대인 것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가게 주인의 도움으로 콜택시를 불러 잼싸게 동네를 탈출. 시간과 계절이 반대인 지구 반대쪽에 있는 대척점의 기억하면 조금 으스스해진다.

18) 푸에르토 이과수(Puerto Iguazu) - 남위 25도 35분/195미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푸에르토 이과수까지는 특급 침대차로 17시간이 걸린다. 버스 가격은 80달러 정도. 역시 칠레처럼 인구가 희박하여 아르헨티나에서도 버스에서 식사를 제공하며, 두 명의 운전사가 교대로 운전하여 거의 무정차로 달린다.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쪽에 있다. 푸에르토 이과수가 포즈도 이과수가 각각 나라의 도시이며, 파라과이의 시우다드 델 에스테도 포즈도 이과수와 다리하나를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는 페리로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세 도시가 붙어 있다보니 세 도시를 오가는 버스와 페리가 있다. 그런데 요금 체계가 조금 이상하다. 예를 들어 푸에르토 이과수와 포즈도 이과수를 오가는 버스는 요금이 3페소 또는 3헤알이다. 브라질 돈인 헤알의 환율은 1달러에 1.70, 아르헨티나 페소는 1달러에 3.05페소이다. 헤알로 내면 차비를 거의 두 배나 내어야 하는 셈이다.

이런 환율에 의한 물가 차이 때문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푸에르토 이과수의 주유소엔 브라질 번호판을 단 차들이 엄청나게 긴 줄을 선다. 석유가격이 아르헨티나가 월등하게 싸기 때문이다. 만약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로 가는 장거리 버스도 아르헨티나에서 표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싸다. 아마 두 나라가 같은 화폐를 사용한다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상당한 물가고를 겪을 것이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가입국인 두 나라 국민들은 그냥 버스를 타고 국경을 오가지만, 출발한 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외국인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 이민국을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한다. 입국자들을 막지 않는 나라는 드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08년 2월

19)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 남위 22도 55분/0미터

이과수 폭포가 남위 25도 정도에 있고, 리우데자네이루는 남위 23도 정도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거의 남회귀선을 따라 서경 55도에서 서경 43도까지 동쪽으로 브라질 남부지역을 횡단하였다. 소요시간은 22시간. 남미에 와서 벌써 남회귀선을 다섯 번째 통과한다.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왔다갔다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남회귀선은 칠레-아르헨티나-파라과이-브라질을 지나고 적도는 에콰도르-페루-콜롬비아-브라질을 지난다.

리우 카니발 기간에 맞춰서 리우를 방문했다. 모든 물가가 공식적으로 인상되며, 방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가격뿐만 아니라 1주일 단위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여행자들은 카니발을 즐기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미국에 유학 중인 한 한국

인 청년이 코파카바나 해변에 있는 아파트를 10일동안 통째로 빌렸다. 그런 후 사이월드를 통해 사람을 모아서 n분의 1로 나누어 머무는 날 수만큼 방값을 내도록 했다. 며칠 머무는 것에 상관없이 1인당 하루에 44달러를 내면되었다.

워낙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카니발이라 안전상 조금 위축되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함께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밤에 삼보드로모에 함께 가서 압표를 구하기도 하고,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하지만 진짜 카니발은 퍼레이드를 벌이는 삼보드로모가 아니라 거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트럭을 개조하여 밴드가 트럭 위에서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그 트럭을 따라 가면서 길거리에서 계속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보는 축제가 아니라 즐기는 축제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이 움직이며, 맥주나 음료수를 파는 장사들도 함께 따라서 움직인다.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화장실.

20) 상파울루(San Paulo) - 남위 23도 33분/ 800미터

2008년 카니발의 주제는 일본인들의 브라질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카니발은 리우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전역의 각 도시에서 진행된다. 상파울루에서는 일본인 타운에 숙소를 잡았고, 일본인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도시락을 사먹었다. 하지만 후식은 메로나 아이스크림. 한글로 상품명에 쓰여진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브라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글로벌 시대가 실감났다.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집권이후 경제 사정이 아주 좋아졌다. 그 결과 통화인 헤알이 엄청나게 강세였다.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헤알은 더 강세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때 여행경비 때문에 압박을 꽤 느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에서 함께 투어에 참가했던 브라질 젊은이들의 말이 기억났다. “브라질은 비싸기 때문에 국내여행을 못하고 물가가 저렴한 볼리비아를 여행하러 왔다.”

마지막으로 상파울루 시내에서 공항버스가 출발하는 곳까지의 전철비와 버스 요금만 빼고 모든 돈을 탈탈 털어 썼다. 전철표를 끊고 승강장으로 들어갔는데,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짐을 가지고 지하철을 도저히 탈 수가 없었다. 아! 다시 밖으로 나와서, 택시 운전사와 협상을 한 후 그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만 다시 ATM에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검색대에서 치약과 썬크림을 빼앗겼다. 용기 속에 들어 있는 액체는 모두 비행기에 들고 탈 수가 없다.

에필로그

남아공 출신 마이크 혼(1966년생)은 1999년 가봉에서 서쪽으로 출발하여 적도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시도하였다. 17개월, 정확히 514일 만에 그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그 경험을 적은 『적도 일주』(터치아트, 2007)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가 정한 규칙은 적도에서 남북으로 40킬로미터를 벗어나지 않고 전진해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남미 구간의 경우 그는 자전거, 카누, 도보로 적도를 따라 3천 6백 킬로미터를 횡단하였다. 식사는 현지에서 직접 조달. 올무

로 악어, 원숭이 등을 잡아 조리해서 먹었고, 중간에 인디오 보호 구역이 있어 약간 지그재그로 움직였다. 특히 어려웠던 구간은 코카인 카르텔이 점령하고 있는 콜롬비아 지역이었다고 한다.

1993년 1년 예정으로 미국의 샌디에이고를 출발하여 리우 카니발을 목표로 남쪽으로 내려간 적이 있다. 페루 티티카카 호의 푸노(Puno)에서 여행을 멈추고 다시 북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단 볼리비아와 칠레 비자를 받지 못해 육로로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었고, 항공편으로 들어가려던 브라질의 비자 발급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볼리비아만 비자가 필요했다. 정말 우리의 국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17년 전에 중남미 여행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던 문제는 비자였다.

2년 예정으로 전 가족이 세계 일주를 떠났던 후배는 결국 첫 대륙이었던 북미와 남미만 1년 여행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민박집을 열었다. 멕시코에서 구입한 차를 끌고 멕시코 변호판을 달고 중남미를 거쳐서 아르헨티나에 입국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고, 아이도 하나 더 나았으며, 큰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나에게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개방도와 유연성이 놀랍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국제화, 세계화란 과연 무엇일까? 지구촌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밖에 나가서보면 의외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인다. 남미는 멀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주 가게 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